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삶의 주인이 돼라

정토회, 법륜 스님 2030청춘멘토링 ‘방향해도 괜찮아’...마지막 강의 ‘성공’

역대 연봉, 고급 승용차, 넓은 평수의 아파트... 누구나 바라는 부의 기준이며, 성공의 척도이기도 하다. 하나 이러한 것들을 다 이뤘다고 해서 삶이 행복할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 성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 법륜 스님의 2030청춘멘토링 ‘방향해도 괜찮아’ 마지막 강제가 열렸다. 법륜 스님은 4월 21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성공’을 주제로,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에 대해 조언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Q: 27세 미혼 남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의 기준이 좋은 직업과 풍부한 돈벌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는 제 나이가 서른이 되면 연봉 3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꿈은 더 커져만 갔고, 1년 전에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세무사 준비도 하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성공의 기준을 ‘시험 합격’으로 잡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성공인지 궁금합니다.

A: 어린 아이들한테 “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하고 물으면, “공부 잘하는 거요”라고 대답합니다. “공부 잘해서 뭐가 되고 싶니?”하고 물으면 “좋은 학교 갈라고요” 말합니다. “좋은 학교 가서 뭐 할려고요?”하고 또 물으면, “좋은데 취직 할려고요”라고 답합니다. “좋은데 취직해서 뭐 할건데?”라고 다시 물으면, “좋은 집 사려고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문겠습니까. 성공은 왜 하고 싶은 겁니까? 돈은 벌어서 뭐 할라고 합니까? 큰 집에 살면 뭐가 좋습니까? 큰 집은 청소만 하기 힘들다. 남한테 과시하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겁니까? 남한테 과시하는 게 뭐가 그리 좋은 일입니까. 만약 시험을 준비하다 시험에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음 시험에 떨어질 때는 오기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가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 시험 준비만 하다 인생을 끝마칠 겁니까? 취직해서 돈 버는 것도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평생 시험만 준비하다 결국 행복의 맛도 못보고 죽는 겁니다. 인생은 무

엇을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이 일이 좋은가? 이렇게 도전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걸림이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 자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한 것은 행복해 하면서 공부하는 건 괴로워합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 산을 오르는 건 힘들어 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라면 헬리콥터나 케이블카를 타지 힘들게 걸어서 왜 올라갑니까? 등산은 중간만 갔다 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등산은 그 자체로 한 만큼 좋은 겁니다. 조금 걷다 내려와도 운동을 했으니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삶은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과정 없이 결과만 있을 바랍니다. 여러

집중력 있으면 성공하기 마련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주인돼야

분들이 공부하는 게 괴로운 것도 합격에 대한 즐거움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아무리 합격기도를 올려봐도, 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부처님께서 시험에 합격시켜 주실 거 같습니까? 그건 부정입학입니다. 부처님을 부정합격 시키는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은 그 분야에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시험에 합격되면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아직은 내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10년을 해도 안 되면 그때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딱 접으세요. 합격을 하기 위해 목숨 걸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하던 게 역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식은 내가 살아가면서 간접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부는 정말 원하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것이고, 판·검사는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을 보살펴 주기 위해 판·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농노가 있었습니다. 자본시대에는 노동자가 생겼습니다. 노동자는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와 노동자는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과 놀이는 같은 행위이지만, 돈을 받으면 노동이 되고 주면 놀이가 됩니다. 노동을 놀이화하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즐겁게 여기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에도 공부가 하고 싶어 미칠 만큼 재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열심히 공부를 하다 하기가 싫어지면 그때 미련 없이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삶의 주인이 돼라

Q: 저는 미술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예술가로 계속 살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습니다. 예술가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예술은 성공이 없습니다. 글을 쓰고 싶으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 사람은 공감하면 실패가 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 성공이 됩니다. 이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수고, 소수인 차이 뿐입니다. 예술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면 그 뿐입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까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그림이 좋으면 밤낮 가리지 말고 그냥 그림을 그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그림도 베껴가면서 닮는 대로 그리십시오. 계속 모방을 하다 어느 순간 틀리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그리다 보면 스스로 또 무언가를 창조해 내게 됩니다. 그렇게 혼신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나면 평가는 역사가 하는 겁니다. 본인이 미리 자신의 작품을 두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면 내 강의가 좋았던 거고, 듣기 별로였다면 내 강의는 별로였던 겁니다. 강의를 들을 때 ‘돈도 안 드는 강의 들었는데, 스님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



는 겁니다. 항상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주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다 아니다 싶으면 관두십시오. 그렇게 자꾸 도전하고 실패하면 고치고, 또 다시 도전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해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하면 삶이 적극적으로 됩니다. 가능하면 늘 새로운 거에 도전해 보십시오.

단순히 돈벌이로 여겨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기위해 그림을 그리면 진정한 예술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 예술에는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혼이 담긴 작품은 몇 백년이 지나도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십시오.

도전해라, 그리고 혼신을 다해라

Q: 저는 사범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사범대에 들어갔고 졸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이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 자신이 진정으로 선생님이 될 사람인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공부를 중단하고 제 진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A: 현재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점점 더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기가 힘들어 질 겁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1~2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 공부를 해보십시오. 나중에 시험에 떨어진다며, 그때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5년씩 목매달 이유가 없습니다. 2년 이상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두번째는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다면 이 나라를 떠나십시오. 인도나 필리핀에 가면 선생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배우고 싶어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비록 돈을 못 벌겠지만, 선생님은 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생활도 지겨우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집중력이 있으면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혼신을 다해 도전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려·이은정 기자

奉 제1회 룸비니 세계불교 문화올림픽 行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도모집

입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간단한 소정의 절차로 모십니다. 본 종은 창종한지 10년되었으며 현재 312개 사찰 및 비구, 비구니 480명 이 등록된 전통 종단입니다. 연간분담금 일체받지 않습니다.

- ◆ 입종대상 :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
-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복사본 1매, 사진 1매
- ◆ 문 의 : 053)325-0400, 053)325-5288
팩 스 : 053)325-4848 / H.P : 010-3900-3050
- ◆ 다음카페 / 각황사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총본산 각 황 사
- ◆ 칠답사 백성장로 임제종 문화 광덕사 정심장로 법제사 종정대행 : 석 능인 대종사

성지순례 신청문의 : 열린 여행사 代 055)333-6114
행사 동 참 문 의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代 02)761-0410

<<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세계불교융합 >>

증명대법주 만옹. 도성. 관산

- 증명법주 학운, 현불, 청암, 보각, 묘각
증명법사 범아, 법장, 원각, 혜승, 혜안, 지우, 동월, 진각, 효천, 혜월, 운암, 청산, 현덕, 도천, 응산, 인목, 법공, 원통, 심공, 명석, 혜천, 청인, 길상, 종묘, 보승, 상호, 법륜, 진광, 각일, 법운
- 사무총장 : 능인 추진위원장 : 덕산 집행위원장 : 법장 운영위원장 : 일웅
심사위원장 : 묘각 기획위원장 : 담화 성지순례단장 : 현각 총괄본부장 : 현광

■ 행사경연내용

- 의식 : 영산재, 수륙재, 예불 등 고유불교 의식
- 의상 : 출가자, 재가자 의복 등 불교의상쇼
- 음식 : 민족 전통불교 음식 쇼
- 음악 : 영산음악, 찬불가, 독창, 합창
- 무용 : 전통무, 고전무, 살풀이, 사물놀이
- 영상 : 불교영화 및 다큐
- 미술 : 불교전통무예, 미술 : 탕화, 조각, 불상, (작품제출)
- 경전 : 독송 및 사경

- 범음범패 한국대표단 및 합창단 모집.
- 봉사단체 한국대표단 모집.
- 현지사정으로 행사일정이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 룸비니 탄생지에서

1. 무차선 세계대회
2. 세계 불교연합 대법회
3. 불교문화재 EXPO박람회
4. 불교국가 미술대전
5. 유네스코 주관 문화재 보존세미나
6. 탄생불 불상조성 기공식
7. 석가모니 진신사리 및 10대 제자 사리 전시

- 주 최 : 네팔관광부,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 주 관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 후 원 : 네팔관광청, 룸비니개발위원회, NRN세계봉사단체, 네팔불교협회, 네팔불교청년회, 세계고승승가연합회,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불교TV방송, 대한불교알평승가회
- 봉사단체 : 세계불교문화올림픽봉사단 (WBOV) <http://cafe.daum.net/wbov> [자원봉사단 신청 접수]
- 일 시 : 불기2555년(2011년) 11월 5일 ~ 2011년 11월 25일
- 개 막 식 : 11월 5일 · 폐 막 식 : 11월 25일
- 장 소 : 네팔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동참인원 약 10만명)